

###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2017 세광교회 단기선교

일시: 2017 년 2 월 20 일-24 일 (월-금)  
장소: 혼두라스 랩피라 지역의 라플로레스 (최문재 선교사)  
사역: 의료 및 전도, 어린이 사역  
여름의류를 Donation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두라스 단기선교를 위한 "Paint Day"

일시: 2 월 18 일(토) 오후 1 시  
장소: 세광교회 1 층 친교실

- 교육부 광고

Sight and Sound Trip for Sunday School and Youth Group

일시: 3 월 25 일 (토)  
입장료: Adult \$85  
Children \$50  
Kids age(3-12) \$31

- PCA 한인동북부노회 뉴욕시찰회 연합 제직수련회  
오늘 오후 5 시 뉴욕남교회(박상일 목사)에서 열립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담임목사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2017 년 1 월 안내: 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이영순 권사/시편 112 편  
이번 주 친교: 김현정/오영숙 집사  
그외즈 치규·소우체/최겨간 지사

###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분당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분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 시 분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만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 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 주일예배순서

2017 년 1 월 29 일

인도:  
이민영 목사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다 찬양하여라”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찬송 (Hymn) 36 장(통 36 장)  
다함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15 편

윤정호 집사 찬양(Choir)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세광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계(Rev.) 5:1-14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1. 22. 주일설교 요약

하늘에 열린 문 (계 4:1-11)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이시기 전에 열린 하늘문을 통해 천상의 보좌와 예배 장면을 먼저 보여줍니다. 장차 일은 일곱 인봉과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의 대접을 통해 펼쳐질 환난과 투쟁, 인내와 승리, 심판과 최후 구원의 일들입니다. 극심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것을, 그와 함께하여 인내로 승리한 성도들에게 최후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래 일을 보기 전에 예배드리게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멈춰 예배드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안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두렵기만 합니다. 오늘 예배드려 주님이 우리의 능력과 기쁨이 되는 것이 장래 일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본 것은 보좌와 예배자들이었습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자들은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은 보석과 무지개, 수정바다와 같은 아름답고 영광스런 이미지들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모습 가운데는 존귀와 능력과 찬란함 뿐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인내하시고,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긍휼의 표현이기도 합니다(창 9 장).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낮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에서 최고조에 달합니다.

수정같은 유리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재질이어서 하나님의 존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바다의 물결 위에 세상의 터를 세우신 하나님, 물결이 소리를 높였으나 잠잠케 하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뒤엎으려는 바다와 물결,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불과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바다”는 돛 물항아리에 담겨 제사장과 제물을 정결케 하는 일에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물결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새 하늘 새 땅에는 “더이상 바다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계 21:1).

이렇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은 객관적인 삼인칭의 영광이 아니라, 구속받은 신자들에게 나타하신 일인칭의 영광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는 예배자들의 모습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배자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네 생물과 장로들입니다. 네 생물은 피조물들의 대표이고 장로들은 구속받은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네 생물은 감히 다른 말로 표현 못하고 거룩하신 분, 영원한 분을 높입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장로들 - 그들은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흰 옷과 면류관,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계 2-3 장) - 의 예배는 조금 다릅니다. 예배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를 압니다. 자랑과 존귀는 자기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알기에 면류관을 던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그분의 높으심과 능력의 은택을 입은 존재로 - 구원을 받고 존귀케 된 존재로 - 그 앞에 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것을 기뻐하기에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이런 예배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낮을수록 높아지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의 열린 문을 허락하셔서 참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이미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돌아가실 때 휘장이 열려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 문을 여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여신 예수님(엡 3:12)을 예배할 때 우리 생명과 인생과 복음과 사명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은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하는 힘은 오늘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2/5) 설교: 그리스도의 복음 (갈 1:1-9)